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만 3-6세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 단기효과성 평가 연구*

The Effect of an Improvement Service for Child Cognitive Ability Aimed at the
Development of linguistic Ability in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3-6 Years :
An Evaluation for Short-term Effectiveness*

이봉주(Bong-Joo Lee)¹⁾

김낭희(Nang-Hee Kim)²⁾

김현민(Hyun-Min Kim)³⁾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short term effectiveness of a cognitive ability improvement service for children, which is one of the ‘Investment activities for Local Community Services’ conducted by the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Results indicate that the longer the period of using cognitive improvement services for children, the more positively significant influence there is on their language abilities in terms of comprehension, expression, and reading-writing. Furthermore, these influences are stronger in children of low-income families than in children from higher income families . Certainly, this type of service improves infants’ language abilities regardless of the income level of their families.

Key Words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Improvement Service of Child Cognitive Ability), 언어능력(Language Ability), 단기효과성(Short-term Effectiveness).

* 본 연구는 2008년 정부(보건복지가족부)의 재원으로 수행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이봉주 외, 2009)’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¹⁾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²⁾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³⁾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Nang-Hee Kim,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ollage of Social Sciences, Seoul National University, 599 Gwanak-ro, G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 chanter@hanmail.net

I. 서 론

정부는 2007년 4월 전자바우처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사회서비스를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최초 노인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를 시작으로 2009년에는 8개 영역으로 사회서비스를 확대하였으며, 2009년에 12,822억원이었던 정부 예산도 2013년까지 29,014억원으로 확충할 계획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b). 이 중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지역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으로 분류된다.¹⁾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포함한 정부의 사회서비스는 인구구조의 변화, 가족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가 등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전략적 대응으로 추진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a). 2007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점부터 시행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빈곤세습화를 차단·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아동기 인적자본 투자 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 도입되었다.

국내의 연구에 의하면, 아동기 빈곤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정서·사회성 등 아동발달의 전반적인 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며,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은 낮은 학업성취도와 비행 등 행동적인 문제로 연결되고, 궁극적으로 성인기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rooks-Gunn & Duncan, 1997; Corcoran, 2000; McLoyd, 1998; 구인회, 2003; 김재엽·이익섭·박수경,

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역선택형, 지역개발형으로 분류된다. 지역선택형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비만아동건강관리서비스가 있다. 지역개발형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욕구를 고려하여 지역맞춤형으로 서비스를 개발하여 제공하는 형태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a).

1998; 박현선, 1999;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05). 그러한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개입방법 중 가장 효과적인 유형으로 아동발달 조기개입프로그램이 대표되고 있는데(Heckman & Lochner, 2000), 조기개입프로그램은 아동의 언어, 행동, 인지, 사회심리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저소득층 아동에게 그 효과가 더욱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Casto & Mastropieri, 1986; Heinicke, Beckwith, & Thompson, 1988; Olds & Kitzman, 1993; Sandall, 1990; Waldfogel, 2006). 뿐만 아니라 비용-편익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사회에 매우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Karoly & Bigelow, 2005; Karoly, Kilbun, & Cannon, 2005). 영국, 미국, 독일, 호주, 태국, 일본 등 해외 여러 나라에서는 조기개입프로그램이자 인적자본투자의 일환으로 책읽기 프로젝트가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다. 영국의 예를 들면, 민간기업과 독립자선단체인 Read-The Reading Agency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범국가적 책읽기 그룹 프로젝트(Reading Group Project)인 Chatterbooks를 비롯하여, 가정 내에서 아동에게 글을 가르치는 것을 지원하는 국가적 차원의 전략인 Family Reading Matters(FRM), Book Start, Booktime, Booked up, 그리고 The Letterbox Club 등으로 운영되는 범국가적 책증정 프로그램(national bookgifting programmes)인 Book Trust 운동 등이 진행 중에 있다. 미국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로스엔젤레스 공공도서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독서진흥프로그램 GAB(Grandparents and Book), 1990년부터 교육당국과 Washington Reading Corps(WRC)의 협조 하에 시작된 Book For Kids 운동, 그리고 전국 소아과 치료실에 온 부모에게 크게 읽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조언해 주고 아이에게 새로운 책을 나눠줌으로써 조

기 문해능력을 증진시키는 Reach Out and Read (ROR) 활동 등이 추진되고 있다(문화관광부, 2005; 2007). 위와 같은 다양한 책읽어주기 활동은 어휘력, 언어이해력, 읽기능력 등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언어발달이 주요한 발달과업인 초기아동기의 핵심적인 개입프로그램으로 인정되고 있다(Neuman, 1996; Sanacore, 1991; Scarborough & Dobrich, 1994; Senechal, 1993; 마송희, 1998; 장석례,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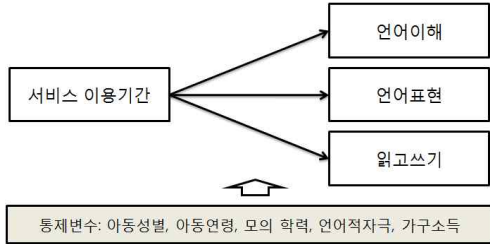
주요서비스 내용이 책읽어주기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언어발달과 인지발달의 역동적 상호작용에 근거를 두고 있다. Vygotsky(1962)에 의하면, 인지와 학습은 복잡한 역동관계에 있는데 학습이 발달을 주도하기 때문에 언어발달이 인지발달을 가져온다고 정의내리고 있다. 물론, 사고가 우위인지 언어가 우위인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책읽기활동 등을 통한 언어발달이 다양한 측면의 인지발달을 촉진한다는 것이 실증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Burchinal et al., 1997; Cochran-Smith, 1984; 장유경 · 최유리, 2009).

그 외 아동의 언어발달은 성별이나 연령과 같은 인구학적 요인, 그리고 아동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 가정내 자극환경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생물학적으로나 심리·사회학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발달 속도나 능력에서 우세하다는 것이 일반론이다(McGlone, 1980; 배소영 외, 2004; 신경혜 · 황상민, 1994; 이현진 · 박영신 · 김혜리, 2001). 연령은 아동의 언어발달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이미 많은 아동발달 연구에서 인정되었고, 공통적으로 아동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영역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ee & Boyd, 2004; Vasta, Haith, & Miller, 1999; 신은수, 2005). 아동가구의 사회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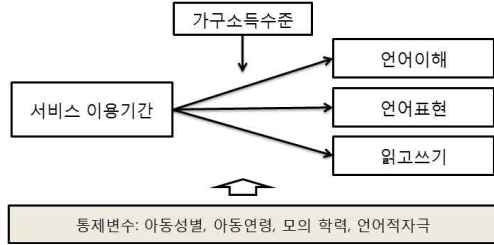
제적 배경 역시 아동의 언어발달에 주요 예측요인으로 언급되는데(Bernstein, 2003; Lawton, 1999; 유재열, 1983; 장영애, 1995), 특히 아동 모(母)의 학력은 아동발달, 특히 언어 발달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Bornstein et al., 2003; Hart & Risley, 1995; 유재열, 1983; 이지연 · 곽금주, 2008; 장영애, 1995). 가정내 발달 자극환경도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요인으로 거론되는데(Anderson, 1984; Teale, 1988; Sanacore, 1991), 일반적으로 아동이 저연령일 때 가정내 자극환경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한다(Hart & Risley, 1995).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구체적인 사업목적은 ‘영유아 발달 초기부터 아동과 부모에게 독서 지도 및 관련 정보 제공 등 서비스를 통해 아동의 창의적·생산적·균형적인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다.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6세 이하 아동가구에 ‘독서 도우미’가 주 1회 이상 파견되어 매회 20~30분가량 아동의 연령 및 특성에 적합한 책을 선정하여 1:1 독서지도(책읽어주기 등)를 하며, 부모에게는 효과적인 독서지도를 할 수 있게 독서 지도 관련 각종 정보 제공 및 책을 통한 아이와의 상호관계 방법을 지도하는 것이다(보건복지부, 2008).²⁾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추진배경을 고려해볼 때, 단기적으로는 아동의 언어발달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빈곤세습을 차단·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국내의 선행연구를 통해 아동조기개입프로그램, 특히 책읽어주기 프로그램이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국외의 경우 국가 및 주(州) 단위 프로그램에 대해 장·단기적으로 그 효과성을 입증하

2) 2009년에는 만 2-6세 아동, 1회 방문시 10-20분으로 변경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 2009a).



<그림 1> 연구모형① : 서비스이용이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림 2> 연구모형② : 서비스이용이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 가구소득 수준별 집단 비교

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으나(Karoly, Kilbum, & Cannon, 2005; McCormick, 1989; U. S. Department of Education, 1995), 국내 연구는 대부분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을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박찬화·김명순, 2010; 김미애, 1999; 마송희, 1998; 성현란 외, 2006; 장석례, 2001). 즉, 국내에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같이 중앙정부차원에서 전국단위로 제공되는 공적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 특히 수요자측면에서 대상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하여 프로그램 효과성을 평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최근 2-3년 사이에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효과성을 입증하는 것은 향후 정부정책의 존속, 유지, 확대를 위한 정당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절실한 과제라 하겠다. 보다 장기적으로는 현재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를 통해 향후 빈곤세습화를 예방할 수 있을지 사전 진단해 보는 과정 역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정책으로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실효성을 입증하고자, 언어발달이 핵심적인 주요 발달과업인 만 3-6세 아동을 대상으로, 단기 효과성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서비스이용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더불어, 향후 빈곤세습화 차단이라는

장기효과성 평가를 대비한 탐색적 검토를 위해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만 3-6세 아동의 언어능력(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만 3-6세 아동의 언어능력(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선행연구 검토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연구 모형을 설정하였다. 통제변수로 아동성별, 아동연령, 아동의 모(母)학력, 가정내 언어적자극, 가구소득을 포함하였다. 서비스이용이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영역별로 살펴보기 위하여, 언어능력을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변수로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추가적으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이용이 아동의 언어능력(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 보았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 모집단은 전국의 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서비스 신청당시 만6세 이하) 아동 중 2008년 12월 현재 보건복지부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이다. 조사대상은 2008년 서비스 이용아동 중 언어발달이 주요한 발달 과업인 만 3세-6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면접 및 자기기입식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2008년 12월 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면접 설문은 해당아동을 지도하는 독서지도사가 실시하였으며, 자기기입식 설문항목은 보호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타당도를 위해서는 과학적 표본설계 과정을 거쳐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본 연구는 설문조사기간의 시간적 제약과 자원의 한계로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제한이 있어, 설문조사는 전체 서비스 이용아동을 대상으로 하되 조사기간 동안 취합·완료된 9,187개의 설문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2. 측정도구³⁾

1) 서비스이용

독립변수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서비스이용기간이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전국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full-coverage service)로, 전국의 대상아동들에게 동일한 서비스(주 1회, 회당 20~30분, 아동책읽기 지도)를 제공한

다. 따라서 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할 수 있을 정도로 변량(variation)이 나타나는 영향요인으로 서비스이용기간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서비스이용기간은 아동이 서비스를 이용한 총 개월 수로 측정하였다.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대 서비스이용기간은 12개월이므로 서비스이용기간의 범위는 0-12개월이다.

2) 언어능력

종속변수는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 정도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언어능력 발달을 매우 다양하게 측정하고 있는데 대체로 듣기, 말하기, 읽고쓰기로 집결된다(Amsel, et al., 2002; 김민화·곽금주·김연수, 2009; 김안나·권민균, 2010; 우현경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언어능력을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도구는 바인랜드 행동적응 척도Ⅱ(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2Ed.) (Sparrow, Cicchetti, & Balla, 2005) 중 의사소통 영역(Communication Domain) 범주의 ‘언어이해(Receptive)’, ‘언어표현(Expressive)’, ‘읽고쓰기(Written)’ 3개 하위항목을 번안하여 활용하였다. 바인랜드 행동적응 척도는 Doll의 Vineland Social Maturity Scales를 근간으로 1984년 Sparrow 등이 개발한 척도로 미국에서는 임상현장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 표준화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신뢰도 높은 측정으로 그 효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Atkinsin, 1990; Middleton, Keene, & Brown, 1990). 우리나라에서는 김태련과 이경숙(1993)이 표준화연구를 통해 국내 소개한 이후 아동 및 성인 발달연구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본 척도는 면접자가 아동 양육자를 인터뷰하여 측정한다. 양육자는 각 문항마다 ‘그렇지 않다(0점)’, ‘종종 그렇다(1점)’, ‘매우 그렇다(2점)’, ‘모름

3) 측정도구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이봉주 외(2009)의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참조.

(DK : Don't Know)'으로 응답한다. 언어이해 20 문항(범위 0-40점), 언어표현 54문항(범위 0-108 점), 읽고쓰기 15문항(범위 0-30점)이다. 내적일 관성을 나타내는 크론바알파 신뢰계수는 언어이 해 .907, 언어표현 .948, 읽고쓰기 .969이다.

3) 인구학적 특성 및 가구환경

선행연구 검토에 근거하여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으로 ①아동성별(남 = 0, 여 = 1), ②아동연령 (만 3-6세, 연속변수), ③아동 모(母)학력(고졸 이하 = 0, 대재이상 = 1), ④언어적자극 ⑤가구 소득을 측정하였다. 아동가구의 언어적자극 환 경은 만 3-6세 아동 대상의 EC-HOME(The Early Childhood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척도 중 '언어적자극(Language Stimulation)' 하위척도를 사용하였다. EC-HOME 은 미국의 Syracuse 대학 연구팀이 개발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장영애(1981)가 최초로 번안 하여 사용하였고, 이은혜와 장영애(1982)가 타당 도 검사를 실시하여 총 88개 문항의 척도를 수정 · 개발하였다. 총 7개 문항이며 각각 그렇다 (1), 아니다(0)으로 측정한다. 내적일관성을 나타 내는 크론바알파 신뢰계수는 .760이다. 가구소득 은 로그변환값으로 분석하였다. 가구소득 수준 별 집단비교는 본 연구대상 가구의 중위소득 (210만원)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210만 원 초과 = 0, 210만원 이하 = 1).

3. 자료분석

SPSS 18.0 windows 통계프로그램으로 기술통 계를 분석하였으며, AMOS 7.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한 구조방정식모형(SEM)으로 연구문제를 분석하였다. 서비스이용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서비스이용기간과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 고쓰기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가정한 재귀모델 (recursive-model)을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가구 소득 수준별 서비스이용기간의 영향력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 방법을 활용하였 다. 추정법으로는 구조방정식모형에서 가장 보 편적으로 활용되는 ML(Maximum Likelihood) 법을 적용하였다(배병렬, 2007).

III 결과분석

1. 조사대상자의 특성

<표 1>에 조사대상자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아동의 성별을 보면 남아 50.4%, 여아 49.6%로 남녀의 비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동연 령은 만 3세 아동이 16.3%, 만 6세 아동은 32.8% 로 연령이 높을수록 서비스이용 대상 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아동 모(母)의 학력은 고졸이하가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구분	사례수 (명)	백분율 (%)
아동 성별	남아	4,620 50.4
	여아	4,553 49.6
아동 연령	만 3세	1,496 16.3
	만 4세	2,053 22.3
	만 5세	2,626 28.6
	만 6세	3,012 32.8
모의 학력	고졸 이하	4,145 48.5
	대재 이상	3,905 51.5
가구소득 수준 (평균 = 282만원) (중위 = 210만원)	중위소득 이하	3,533 49.8
	중위소득 초과	3,563 50.2

주) 결측사례 제외

<표 2> 주요변수의 특성

변수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왜도	첨도	
서비스이용기간	7.78	3.071	6,797	-1.082	.126	
가정내 언어적자극	5.58	1.786	9,125	-1.413	1.566	
언어 능력	언어이해	33.90	7.185	9,186	-1.380	1.663
	언어표현	75.27	16.315	9,187	.127	-.266
	읽고쓰기	14.42	11.124	9,186	.174	-1.647

48.5%, 대재이상이 51.5%로 대재이상의 학력이 약간 많았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 수준을 살펴 보면 평균소득은 282만원, 중위소득은 210만원으로 조사되었다.

2. 주요변수의 특성

<표 2>에 주요변수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서비스이용기간은 평균 7.78개월로 조사되었다. 아동의 가정내 언어적자극은 평균 5.58점으로 나타났으며, 언어능력은 언어이해 평균 33.90점, 언어표현 평균 75.27점, 읽고쓰기 평균 14.42점으로 집계되었다. 분석을 위해 변수들의 다변량 정규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수가 왜도는 절대값 3미만, 첨도는 절대값 8미만으로 나타나 변수들의 정규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Kline, 2005).

다중공선성 진단을 위해 독립변수(통제변수 포함) 간의 이변량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아래 <표 3>의 분석결과를 보면 독립변수들 간에 상관계수는 0.2 이하이며, 분산팽창계수도 1.1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Hocking & Pendleton, 1983; 김두섭·강남준, 2000에서 재인용).

주요변수간 상관관계의 방향성을 살펴보면 서비스이용기간, 여아(= 1), 아동연령, 가구소득은 아동의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능력 발달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 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 수준이 높으며, 남아보다는 여아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아동

<표 3> 주요변수들의 이변량 상관계수

변수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독립변수 & 통제변수	①서비스이용기간	1							
	②아동성별	.034**	1						
	③아동연령	.073**	.009	1					
	④모학력	.008	-.012	-.075**	1				
	⑤언어적자극	-.068**	-.006	-.127**	.121**	1			
	⑥가구소득	.020	-.004	.002	.177**	.060**	1		
종속변수	⑦언어이해	.175**	.045**	.292**	.026*	-.155**	.087**	1	
	⑧언어표현	.129**	.043**	.569**	-.013	-.105**	.034**	.388**	1
	⑨읽고쓰기	.112**	.037**	.748**	-.045**	-.126**	.024**	.318**	.636**

주)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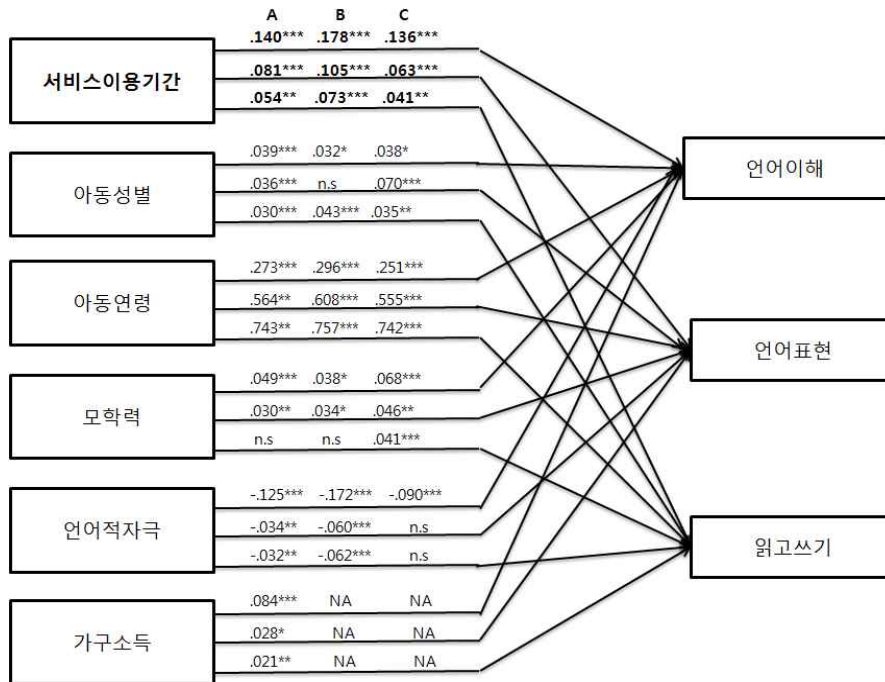
의 언어능력 발달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선행연구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아동 모의 학력은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과 부분적으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가정내 언어적자극은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 쓰기 영역 모두와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을 보면, 아동의 모가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일 때 읽고쓰기 능력 발달 정도가 낮으며, 가정내 언어적자극 수준이 높을수록 아동의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능력 발달 정도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보편적인 선행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이다. 단순상관관계만을 보면 위와 같이 선행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나타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잡한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3. 분석결과

1)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아동의 언어능력(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모형에서 외생변수의 공변량은 상관관계 분석시 상관계수가 0.1 이상인 변수간의 경로만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그 관계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학력-가구소득’, ‘모학력-언어적자극’, ‘아동연령-언어적자극’의 공변량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주 1) A = 전체아동, B = 가구소득 낮은 집단, C = 가구소득 높은 집단. 표준화계수 제시. 외생변수간 공변량 생략.
 주 2) *p < .05. **p < .01. ***p < .001.
 주 3) 모형적합도 : $\chi^2 = 128.761(df = 12)$, $p < .001$. RMSEA = .033. NFI = .992. IFI = .971. TLI = .992.
 주 4) Squared Multiple Correlation : 언어이해 = .129 / 언어표현 = .333 / 읽고쓰기 = .563

<그림 3> 서비스이용기간이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미치는 영향

<그림 3>과 같이, 서비스이용이 아동의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구조모형의 적합도는 $\chi^2 = 128.761(df = 12)$ 로 p -value가 .05 보다 작으나, RMSEA가 .033로 .080 이하이고, NFI, IFI와 TLI값이 각각 .992, .971과 .992로 .900 이상이므로 서비스의 효과성을 분석하기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모형은 아동의 언어이해 능력을 12.9%, 언어표현 능력을 33.3%, 읽고쓰기 능력을 56.3% 설명해 주고 있다. 아동성별, 아동연령, 모학력, 언어적자극, 가구소득의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아동의 언어이해 능력($\beta = .140^{***}$), 언어표현 능력($\beta = .081^{**}$), 읽고쓰기 능력($\beta = .054^{**}$)을 증진시키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가적으로 통제변수를 간략히 살펴보면, 남아보다는 여아가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능력 발달의 수준이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가구소득이 증가할수록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능력 발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5$). 모학력의 경우, 단순상관관계 분석시에는 아동의 읽고쓰기 능력 발달과 부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을 고려한 본 연구모형에서는 모학력과 아동의 읽고쓰기 능력 발달 간 상관관계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그러나 언어적자극 변수는 아동의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능력 발달에 여전히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다.

2)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영향력의 가구소득 수준별 집단 비교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이용이 아동의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

쓰기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에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능력 발달의 수준도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효과가 가구소득 수준이 낮은 집단, 또는 높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도의 차이인지 분석하였다. 이때 가구소득 수준은 조절변수(moderating variable)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분석이 가능하다(배병렬, 2007).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가구소득 수준별로 분석한 결과가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집단별로 제시되어진 경로계수를 살펴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용이 아동의 언어이해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은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의 아동($\beta = .136^{***}$) 보다 낮은 가구의 아동($\beta = .178^{***}$)에게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이용기간이 아동의 언어표현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도 두 집단에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의 아동($\beta = .063^{***}$) 보다 낮은 가구 아동($\beta = .105^{***}$)에게 더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이용기간이 아동의 읽고쓰기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두 집단에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의 아동($\beta = .041^{***}$) 보다 낮은 가구 아동($\beta = .073^{***}$)에게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서비스 영향력의 차이가 과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 분석한 결과가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표 4> 가구소득 수준별 서비스이용기간의 효과성 집단비교

경로	모델	집단	비표준화 계수	C.R.	χ^2	df	$\Delta\chi^2$	
서비스 이용기간 ↓ 언어이해	비계약 모델	소득수준 낮음	.459***	10.443	115.689	16	$\Delta\chi^2 = 8.547$ $df = 1$ $p < .05$	
		소득수준 높음	.290***	7.353				
	등가계약 모델	소득수준 낮음	.362***	12.324	124.236	17		
		소득수준 높음	.362***	12.324				
서비스 이용기간 ↓ 언어표현	비계약 모델	소득수준 낮음	.620***	7.229	115.689	16		$\Delta\chi^2 = 7.072$ $df = 1$ $p < .05$
		소득수준 높음	.307***	3.910				
	등가계약 모델	소득수준 낮음	.447***	7.709	122.762	17		
		소득수준 높음	.447***	7.709				
서비스 이용기간 ↓ 읽고쓰기	비계약 모델	소득수준 낮음	.286***	6.202	115.689	16	$\Delta\chi^2 = 5.045$ $df = 1$ $p < .05$	
		소득수준 높음	.139**	3.139				
	등가계약 모델	소득수준 낮음	.209***	6.537	120.734	17		
		소득수준 높음	.209***	6.537				

주) * $p < .05$. ** $p < .01$. *** $p < .001$.

이용기간→언어이해, 서비스이용기간→언어표현, 서비스이용기간→읽고쓰기 경로계수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 먼저 구조모형의 경로계수가 집단간에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구조모형의 경로계수는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 = 98.120$, $df = 15$, $p < .001$). 이어서, 이러한 차이가 서비스이용기간→언어이해, 서비스이용기간→언어표현, 서비스이용기간→읽고쓰기 경로에 의한 것인지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서비스이용기간→언어이해 경로를 제약하여 등가계약모델을 설정하고 비계약모델과 등가계약모델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그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의 차이임이 밝혀졌다($\Delta\chi^2 = 8.547$, $df = 1$, $p < .05$). 다음으로, 서비스이용기간→언어표현 경로를 제약하여 등가계약모델을

설정하고 비계약모델과 등가계약모델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통계적 유의도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 = 7.072$, $df = 1$, $p < .05$). 마지막으로, 서비스이용기간읽고쓰기 경로를 제약하여 등가계약모델을 설정하고 비계약모델과 등가계약모델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 역시 p-value .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Delta\chi^2 = 5.045$, $df = 1$, $p < .05$). 요약하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아동의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아동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p < .05$).

추가적으로, 통제변수 중 주목할 만한 부분들 간략히 살펴보면, 단순상관관계 분석에서 아동모의 학력과 아동의 읽고쓰기 능력 간에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는데, 서비스 이용, 아동성별, 아동연령, 가정내 언어적자극, 가구소득 등 여러 요인들의 영향력을 통제된 상태에서는 아동 모의 학력이 아동의 읽고쓰기 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 < .05$). 그러나 이를 다시 소득수준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아동 모의 학력이 아동의 읽고쓰기 능력 발달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지만,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경우에는 유의한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가정내 언어적자극은 아동 전체집단에서 아동의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능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가구소득 수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아동에게는 그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5$).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시행 중인 지역선택형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하나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단기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을 위하여 2008년 12월 현재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만 3-6세 이하의 전국 남녀아동 9,187명의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를 간단히 살펴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이용기간이 길수록 아동의 언어능력(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발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력은 가구소득 수준이 높은 가구의 아동과 낮은 가구의 아동에게 모두 긍정적으

로 나타났지만, 전자의 경우보다 후자의 경우에 그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논의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가 언어발달이 주요 발달과업인 만 3-6세 아동의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능력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전국단위로, 표준화된 척도를 적용하여 과학적으로 입증함으로써 행정부정책의 존속을 지지하는 보다 강력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Gilbert와 Terrell(2005)은 사회복지정책 분석의 주된 접근방법으로 3P, 즉 과정분석, 산물분석, 성과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이중 실제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존재가치를 주장할 수 있는 분석은 ‘성과’에 대한 분석이다. 2008년 당시 국내 8개 영리기관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참여하며 각각 서비스성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러나 각 기관은 전국가적 차원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제각기 다른 연구방법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있어 범정부차원에서 신뢰도 있는 정책평가 결과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제공기관들은 정부정책의 성과에 관심을 두기보다 서비스 이용아동수, 서비스 제공횟수, 채용인력수 등 주로 ‘산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적으로 해당 서비스가 아동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정책적 효과를 입증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본 연구는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하여 전국단위 표집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보다 타당하고 신뢰도 높은, 그리고 성과분석에 기반한 연구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함의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모든 서비스 대상 아동에게 효과가 있으나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아동에게 그 효과가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구소득수준의 조절효

과 분석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조사대상 가구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집단을 나누어 분석했을 때, 서비스이용기간은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아동보다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아동에게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모든 영역에서 서비스 효과성이 더 크게 나타났다($p < .05$). 위와 같은 분석결과를 통해 빈곤 세습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기 인적자본 투자 프로그램의 한 유형으로 시도되고 있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장기적 효과성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2008년 이전에 가구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바우처 지원액을 일률적으로 설정하였던 제도를 2009년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 차등화를 적용한 보건복지가족부의 노력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바우처 지원액의 증가액은 2008년 월 2만 5천원에서 2009년 월 2만 7천원으로, 서비스 가격에 대한 본인부담액은 실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서비스 가격은 서비스 제공기관마다 상이하지만, 최저 3만원에서 최고 4만 8천원으로 평균적인 서비스 가격은 약 3만 7천원이다. 월평균 본인 부담액 1만원은 저소득층 가구에겐 여전히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떨어뜨리는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액을 차등화하는 폭을 현실적으로 조정하여 서비스 구매력이 있는 소득계층의 자부담을 늘리고, 저소득층은 자부담을 더욱 낮추는 방향으로 서비스 가격체계를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개선은 사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아동 부문 사회서비스의 보편주의적 진화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

를 확보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와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를 포함한 서비스 이용대상 전체 아동의 언어이해, 언어표현, 읽고쓰기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p < .01$). 현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의 아동이다. 과거 정부에서 시행한 사회복지서비스는 대부분 저소득, 장애아동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주의적·잔여적 서비스의 형태였다. 그러나 2007년부터 전자바우처 제도를 통해 확대되기 시작한 보건복지부의 사회서비스는 과거 최빈곤층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잔여적 성격의 한계를 탈피하여 보편주의적, 제도적 서비스로의 면모를 서서히 갖추어 나가고 있다(이재원, 2008). 물론 국가재정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논쟁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Gilburt & Terrell, 2005, 허만형, 2009).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서비스는 장기적인 시각의 사회투자적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아동발달은 매우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서비스이용에 대한 단기효과성이 즉시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그렇다고 하여 아동기 발달과정 자체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Karoly, Kilbun과 Cannon(2005)의 연구에서도 입증되었듯이 장기적인 사후관리가 뒤따르는 서비스가 비용대비 편익이 가장 크다는 사실도 아동에 대한 지속적 서비스의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에서 입증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효과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서비스대상이 2008년 가구당 제한인원없이 최대 12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2009년에는 가구당 1인, 최대 10개월 지원으로 정부지원 대상이 축

소된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즉, 빈곤세습 예방을 위한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틀 속에서 아동발달에 유의미한 서비스의 단기효과성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이용기간을 연장하고, 가구당 서비스인원에 대한 제한도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아동의 언어능력발달과 관련된 요인들의 역동적인 관계를 분석할 수 있는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주요 변수들의 단순상관관계를 보면 아동 모(母)의 학력이나 가정내 언어적자극과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간의 관계가 선행연구와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의 성별, 연령 및 아동가구의 기능적·구조적 요인이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개별적으로 분리하여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복잡한 현실에서는 여러 요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결합된 영향력을 보일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따라 서비스이용기간이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가구소득 수준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는데, 부가적으로 아동의 모학력이나 가정내 언어적자극 환경이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아동의 언어능력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 결과로는 변수들 간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을 뿐이다. 서비스이용이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의 역동성을 보다 세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동의 성별과 가정내 자극환경과의 관계를 보면, 여아와 남아가 영향을 받는 자극환경의 종류가 상이하하며(Elardo, Bradley, & Caldwell, 1977), 성별에 따라서 가정내 자극환경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는 연구결과도 있다(장영애·서용선, 1983). 아동연령과

가정내 자극환경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저연령일 경우 가정내 자극환경의 영향이 강하게 작용하며(Hart & Risley, 1995), 연령대별로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끼치는 가정내 자극환경의 유형이 다르다는 연구결과도 존재한다(장영애, 1987a; 1995). 또한 만4세 전, 즉 아동이 태어난 후 3년 동안 가정내 자극환경이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으며(Hart & Risley, 1995), 아동가구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내 자극환경이 관련을 맺고 아동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들도 있다(Elardo, Bradley, & Caldwell, 1975; 1977; 장영애, 1987b).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되어진 단순상관관계 분석결과 및 그 외 변수들의 관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를 통해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일차적으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의 주목표인 서비스이용이 아동의 언어능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가장 간명하게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연령에 따라 가정내 자극환경에 변화가 나타나는지(Hart & Risley, 1995), 그렇다면 어떠한 연령대 아동에게 서비스의 효과가 가장 극대화되는지 분석하여 연령대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 선정에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여(장영애, 1981; 1995) 서비스 내용의 개선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극복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자료의 대표성 문제이다. 시간과 자원의 제약으로 체계적 방법에 의한 표집이 어려웠다. 향후 정부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정책평가에 대한 자원을 확보한다면 전수조사 또는 대표성 있는 자료를 활용한 과학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 한계점은

서비스 순효과 해석과 관련이 있다. 서비스의 순효과를 분석해 내기 위해서는 아동인지능력향상 서비스 이용아동과 비슷한 환경에 있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아동집단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실적인 한계로 위와 같은 비교가 불가능하였고, 다만 횡단적으로 서비스 이용집단 내의 서비스 기간 차이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현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는 일정소득이하 전체가구의 잠재이용집단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어(full coverage program) 현실적으로 비교집단을 설정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가 택한 방법이 유일한 대안일 수 있다(Rossi, Lipsey, & Freeman, 2004).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전국단위로 시행되는 중앙정부 차원의 공적 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을 성과에 기반하여 분석함으로써 정부정책 실행을 위한 경험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크다.

참 고 문 헌

구인회(2003).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3, 7-30.

김두섭·강남준(2000). **회귀분석 : 기초와 응용**. 나남출판.

김미애(1999). 어머니에 대한 그림책 읽어주기 훈련이 유아의 읽기 능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민화·곽금주·김연수(2009). 여가활동이 빈곤아동과 일반아동의 인지 및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여가레크리에이션연구**, 33(3), 231-243.

김안나·권민균(2010).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유아기 자녀의 언어능력과 가정환경 변인과의 관계. **아동교육**, 19(1), 163-178.

김재엽·이익섭·박수경(1998). 저소득층 밀집지역

의 가정환경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지**, 6, 54-82.

김태련·이경숙(1993). 이화-바인랜드 적응행동검사(EWHA-VABS) 개발 및 표준화 연구. **특수아동 임상연구**, 3, 133-151.

마송희(1998). 이야기 들려주기가 유아의 어휘습득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18(2), 215-237.

문화관광부(2005).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문화관광부(2007).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박찬화·김명순(2010). 그림책읽기 언어중재프로그램이 저소득 가정 아동의 언어능력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아동학회지**, 31(3), 117-138.

박현선(1999). 고위험 빈곤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사회복지학**, 37, 195-216.

배병렬(2007). **AMOS 7에 의한 구조방정식 모델링**. 청람.

배소영·장유경·곽금주·성현란·심희옥(2004). MCDI-K를 통해 본 한국유아의 표현어휘발달과 성차. **언어청각장애연구**, 9(1), 45-56.

보건복지가족부(2009a). 2009년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안내.

보건복지가족부(2009b). 사회서비스정책 주요 통계자료.

보건복지부(2008). 2008년 지역사회서비스혁신사업 안내.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2005). 한국복지패널조사 1차년도 기초분석 보고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성현란·배기조·곽금주·장유경·심희옥(2006). 인지적 중재프로그램이 영아의 인지발달과 어머니-영아 상호작용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9(2), 41-59.

신경혜·황상민(1994). 성별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학령전 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효과 : 도형과 색을 이용한 언어검사를 통해 평가된 언어능력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7(2), 74-91.

신은수(2005). 3, 4, 5세의 마음이론 발달과 가장놀이, 언어표상능력, 실행기능, 그리고 중앙통합능력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5(1), 65-90.

- 우현경 · 정현심 · 최나야 · 이순형 · 이강희(200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능력에 유아기 자녀의 언어발달. **아동학회지**, 30(3), 23-36.
- 유재열(1983). 빈민층 아동의 언어능력이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 : 어휘 습득량을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봉주 · 박금주 · 김남희 · 김현민(2009).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성과평가 및 발전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 ·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이은혜 · 장영애(1982). 가정환경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교육학연구**, 20(1), 49-63.
- 이재원(2008). **사회서비스 전자마우치**. 대영문화사.
- 이지연 · 박금주(2008). 아동초기 사회경제적 지위(SES)와 가정환경이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21(3), 151-165.
- 이현진 · 박영신 · 김혜리(2001). **언어발달 제2판**. 시그마프레스.
- 장석례(2001). 개별적으로 동화책 읽어주기 활동이 유아의 읽기태도 및 읽기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애(1981). 가정환경 변인과 4-6세 아동의 언어능력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장영애(1987a). 아동의 지적능력과 환경변인 간의 인과 모형분석. **아동학회지**, 8(1), 83-112.
- 장영애(1987b). 가정환경변인과 아동의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 인과 모형 분석. **아동학회지**, 8(2), 17-44.
- 장영애(1995). 가정환경자극, 사회인구론적 변인과 아동의 언어능력간의 인과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3(4), 173-188.
- 장영애 · 서용선(1983). 가정환경 자극검사(HOME)와 학령 전 아동발달 수준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4, 1-10.
- 장유경 · 최유리(2009). 영아기 가정의 책읽기 경험과 지능발달 : 종단연구. **아동학회지** 30(4), 47-56.
- 허만영(2009). 사회복지 이데올로기 정향 분석 : 서울시민의 복지인식 탐색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13(2), 99-118.
- Amsel, E., Byrnes, J. P., Jean Piaget Society. Netlibrary, I., Jean Piaget, S., & NetLibrary, I. (2002). *Language, literacy, and cognitive development the development and consequences of symbolic communication*. Mahwah, N.J. :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nderson, G. (1984). *A Whole Language Approach To Reading*. New York : University press of America.
- Atkinsin, L. (1990). Intellectual and Adaptive Functioning; some tables for interpreting the vineland in combination with intelligence tests. *American Journal on Mental Retardation*, 92(2), 198-203.
- Bee, H. L., & Boyd, D. R. (2004). *The developing child (10th ed.)*. Boston, MA : Allyn and Bacon.
- Bernstein, B. (2003). *Class, Codes and Control : the structuring of pedagogic discourse*. Routledge.
- Bornstein, M. H., Hahn, C. S., Suwalsky, J. T. D., & Haynes, O. M. (2003).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 The Hollingshead four-factor index of social status and the socioeconomic index of occupations. In M. H. Bornstein, & R. H. Bradley (Eds), *Socioeconomic status, Parenting and child development*, 29-82.
- Brooks-Gunn, J., & Duncan, J.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 55-71.
- Burchinal, M. R., Campbell, F. A., Bryant, D. M., Wasik, B. H., & Ramey, C. T. (1997). Early intervention and mediating processes in cognitive performance of children of low-income African American Families. *Child Development*, 68(5), 935-954.
- Casto, G., & Mastropieri, M. (1986). The efficacy of early intervention programs : A meta-analysis. *Exceptional Children*, 52, 417-424.
- Cochran-Smith, M. (1984). *The making of a reader*. Norwood, NJ : Ablex.
- Corcoran, M. (2000). Mobility, persistence, and the intergenerational determinants of children's success.

- Focus*, 21(2), 16-20.
- Elardo, R., Bradley, R., & Caldwell, B. M. (1975).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s to Mental Test Performance from Six to Thirty-Six Months : A Longitudinal Analysis. *Child Development*, 46(1), 71-76.
- Elardo, R., Bradley, R., & Caldwell, B. M. (1977). A Longitudinal Study of the Relation of Infants' Home Environments to Language Development at Age Three. *Child Development*, 48(2), 595-603.
- Gilbert, N., & Terrell, P. (2005). *Demensions of Social Welfare Policy*, 6th ed. 남찬섭 · 유태균 역. 사회복지정책론 : 분석 틀과 선택의 차원. 서울 : 나눔의집.
- Hart, B., & Risley, T. R. (1995). *Meaningful differences in everyday experience of young American children*. Baltimore, MD : Paul Brooks Publishing Co.
- Heckman, J. J., & Lochner, L. (2000). Rethinking myths about education and training : understanding the sources of skill formation in a modern economy. In Sheldon Danziger and Jane Waldfogel, eds. *Securing the future : investing in children from birth to college*. New York : Russell Sage.
- Heinicke, C. M., Beckwith, L., & Thompson, A. (1988). Early intervention in the family system : A framework and review.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9(2), 112-141.
- Hocking, R. R., & Pendleton, O. J. (1983). The regression dilemma. *Communication in Statistics-Theory and Methods*, 12(5), 497-527.
- Karoly, L. A., & Bigelow, J. H. (2005). *The Economics of Investing in Universal Preschool Education in California*. Los Angeles, CA : RAND Corporation.
- Karoly, L. A., Kilburn, M. R., & Cannon, J. S. (2005). *Early Childhood Interventions*. Los Angeles, CA : RAND Corporation.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Y : Guilford Press.
- Lawton, B. (1999). *Social Class, Language & Education*. Routledge.
- McCormick, M. C. (1989). Long-term follow-up of infants discharged from neonatal intensive care units.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1, 1767-1772.
- McGlone, J. (1980). Sex differences in human brain asymmetry : A critical survey. *Behavioral and Brain Sciences*, 3, 215-263.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Middleton, H., Keene, R., & Brown, G. (1990).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ies of the scales of independent behavior and the revised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American journal of mental retardation : AJMR*, 94(6), 669.
- Neuman, S. B. (1996). Child engaging in storybook reading : The influence of access to print resources, opportunity, and parental interaction.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1, 495-513.
- Olds, D. I., & Kitzman, H. (1993). Review of research on home visiting for pregnant women and parents of young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3(3), 53-92.
- Rossi, P., Lipsey, M., & Freeman, H. (2004). *Evaluation : A systematic approach*, 7th ed. Sage Publications, Inc.
- Sanacore, J. (1991). Expository and Narrative Text. *Childhood Education*, 67(4), 213.
- Sandall, S. R. (1990). Developmental interventions for biologically at-risk infants at home. *Topics in Early childhood Special Education*, 10(4), 1-13.
- Scarborough, H. S., & Dobrich, W. (1994). Early Literacy Interventions : the relative roles of storybook reading, alphabetic activities, and their combination. *Reading and Writing*, 19, 489-515.
- Senechal, M. (1993). *Preschooler's expressive and receptive vocabulary development*. New Orleans.

- Sparrow, S. S., Cicchetti, D. V., & Balla, D. A. (2005). *Vineland Adaptive Behavior Scales, Second Edition (Vineland-II)*. Pearson.
- Teale, W. H. (1988). Developmental appropriate. assessment of reading and writing in the early childhood. *Classroom Elementary School Journal, 89*, 173-183.
- U. S. Department of Education. (1995). To assure the free appropriate public education of all children with disabilities.
- Vasta, R., Haith, M. M., & Miller, S. A. (1999). *Child psychology : the modern science(3rd ed.)*. NY : John Wiley & Sons.
- Vygotsky, L. (1962). *Thought and Language (ed & Trans by E. Hanfmann and G. Vaker)*. Cambridge, MA : MIT Press.
- Waldfoegel, J. (2006). *What Children Need*. Cambridge, Mass : Harvard University Press.

2010년 8월 31일 투고, 2010년 11월 4일 수정
2010년 11월 11일 채택